

現代重

선박용 동기 발전기, '세계일류상품'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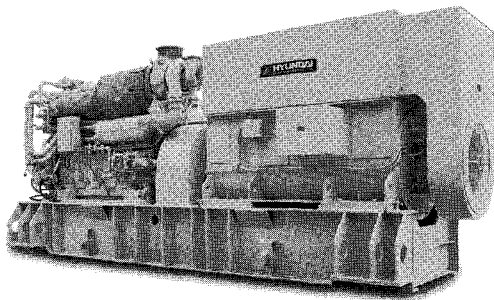
- 선박, LNG선, 대형디젤엔진, 굴삭기등 이어 총 7개 제품 '영예'
- 산자부 선정, 동종업계 최다

現代重工業이 산업자원부가 선정하는 '세계일류상품'에 4년 연속 선정되어 총 7개 품목이 선정됨으로써 동종업계 최다 인증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現代重工業은 '세계일류상품' 제도가 시작된 해인 2001년에 선박(유조선, 컨테이너선, 살물선), 2002년에 대형디젤엔진과 LNG선, 2003년에 굴삭기 및 대형엔진용 크랭크샤프트가 선정되었으며, 2004년에 선박중형엔진과 500kW이상 '선박용 동기발전기(Synchronous Generator for Marine application)'가 또 다시 선정됐다.

現代重工業은 지난 1978년 선박용 동기발전기를 제작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연간 약 300여척 분(약 900대)을 생산, 현재까지 8,800여대의 발전기를 전세계 선박의 주전원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41.5%의 시장 점유율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선박용 동기발전기는 선박의 주전원 공급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 육상에서 사용되는 발전기와는 달리 절대적인 품질의 신뢰성이 요구되는바, ABS(미국), GL(독일), LR(영국), BV(프랑스), DNV(노르웨이)등의 각종 국제 선급 규격이 적용되며 매 호선별로



'2004년 상반기 세계 일류 상품'으로 선정된 현대중공업 '선박용 동기발전기'

인증서(Class Certification)를 발급 받아 납품되고 있다. 現代重工業의 선박용 동기발전기는 국내 조선소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유럽의 유명 조선소로부터 직접 수주를 받고 있으며, 또한 세계 유수의 디젤 엔진 업체를 통하여도 해외 주요 선박에 탑재 되고 있다. 이러한 해외 고객들의 현대 발전기 선호는 풍부한 실적으로 입증된 신뢰성과 품질에 바탕을 두고 있다.

現代重工業 관계자는 "사업 초기부터 해외 유명 발전기 업체와의 직접 경쟁을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품질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자체 연구소 및 해외 엔지니어링센터에서 신제품을 공동개발, 생산하여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일류상품'이란 산업자원부가 수출 촉진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세계시장점유율 세계 5위 이내 이거나, 동종 상품 수출실적 1위 또는 동종 상품 수출총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중에서 선정해오고 있으며, 이 인증서를 토대로 국내외 마케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중부발전

호주 Xstrata사의 유연탄을 우선 공급, 구매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

한국중부발전(주)의 김영철 사장은 5월4일 호주 Queensland주 소재 Xstrata사의 Rolleston 광산 신규 물량 연간 50만톤의 유연탄을 우선공급, 구매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05년도부터 생산이 본격 개시될 신규개발 중인 Rolleston 광산은New South Wales 주에 위치한 광산에 비해 가까워 수송비가 톤당 U\$1.00 정도 낮은 가격으로 다량의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MOU 체결은 최근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연탄의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계약물량의 계약기간 연장 등 공급사 경영진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상호관심사에 대해 협의한 것이다.

최근 아시아 지역의 최대 석탄 수출국인 중국이 자국 내수물량

증가를 이유로 수출물량을 대폭 감소시켜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물량부족 현상 등 최근의 세계 유연탄 시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유연탄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동서발전,

25일 '동서발전 사회봉사단' 창단식 가져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는 25일 한전대강당에서 본사 전 직원 및 사업소를 대표한 220명의 봉사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공헌활동의 주축이 될 '동서발전 사회봉사단' 창단식을 가졌다.

8기의 봉사단기 입장으로 시작된 이날 창단식에는 이용오 사장을 비롯, 각 사업소장과 노조본부위원장, 그리고 지부위원장들이 함께 참석하여 이날 행사의 뜻을 더했다.

'사랑의 손, 희망의 빛'이란 슬로건 아래 출범하는 동서발전 사회봉사단은 7개 지회 총 7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날 창단식에 참석한 단원들은 참된 이웃사랑 실천에 대한 결의와 함께 사회공헌활동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동서발전 이용오 사장은 창단사를 통해 "나눔과 베품의 숭고한 정신을 실천에 옮기고 우리 사회의 '사랑의 손 희망의 빛'으로서 많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동서발전의 사회공헌활동이 지역 사회와 이웃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회사 안으로는 아름다운 기업 문화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지난해 7월 사장경영방침으로 '사회공헌'을 천명한 이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 온 동서발전은 현재까지 성금기부형식과 봉사활동 참여형식을 병행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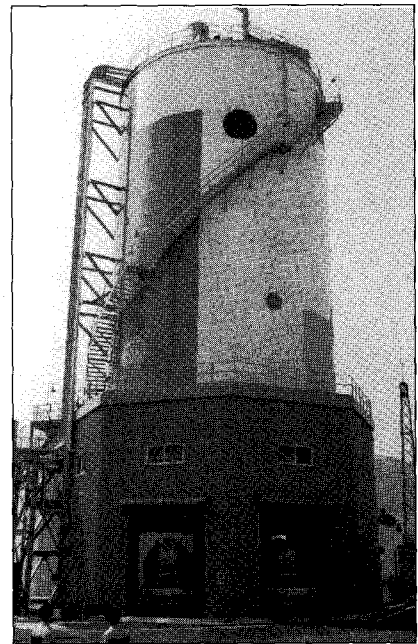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빛을 전하고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왔다"고 밝히고, "이제 그 중심축이 될 사회봉사단이 창단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봉사단 운영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해

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석탄회, 탈황석고 등 재활용, 지난해 69억원의 수익 거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가 지난해 자원재활용을 통해 69억원의 부가수익을 창출, 경영수지 개선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동서발전 관계자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2003년 한해동안 국내 최대 규모인 114만 톤의 석탄회를 시멘트 제조 원료 및



콘크리트 혼화재로 재활용하고 탈황석고도 발생 전량을 석고보드와 시멘트 제조 원료로 재활용하는 등 총 69억원의 부가수익을 창출하였다.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들을 재활용해 자원화함으로써 국내 부존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존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특히 석탄회의 경우, 국내 최고인 81.7%의 재활용률을 기록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 회사발족 이후 각 발전소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유효 자원화와 재활용 확대를 위해 5개 발전회사 중 최초로 '중장기 자원 재활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온 한국동서발전은, 그 결과 지난 2002년에도 석탄회 재활용 판매수익, 탈황석고 전량 재활용, 폐유, 폐지 등의 재활용을 통한 기타 수익 등

총 63억원의 발전소 부산물 재활용 부대수익을 창출한 바 있다.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중장기 자원재활용 계획」추진 이후 지난 3년간 폐기물 재활용량의 증가로 부대수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통해 회사 경영수지 개선과 환경친화경영 실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동서발전은 2004년도 재활용 목표를 138만톤(부대수익 74억원)으로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당진화력의 저회 재활용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새로운 자원재활용 분야를 발굴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서부발전,

범전기인의 축제 '제7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영예의 대상 수상

제7회 한국전기문화대상식에서 한국서부발전(주)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대상을 차지한 서부발전은 지난 2000년 4월 창사이래 2번에 걸친 발전회사 경영실적 평가에서 연속으로 영예의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거둔바 있다.

또 전사 ISO 9001 품질경영체제 인증,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금 활용 등을 통해 설비의 성능보강과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발전산업에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발전사들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난해 국가품질상 대통령상, 2년연속 아이디어 경영대상 수상 등 대외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원동력이 됐다.

서부발전 김종신 사장은 수상 소감에서 “전력분야에서 가장 영예로운 상인 전기문화대상을 받아 전력인의 한사람으로 자랑스럽다”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애쓰고 있는 모든 전력인에게 수상의 영예를 돌리고 특히 이 상을 받기까지 노력한 서부발전 전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두산중공업,

부산 신선대부두에 최첨단 초대형 컨테이너 크레인 공급

- 6단 20열 규모, 컨테이너 2개 동시하역 가능

- 자동화시스템 도입으로 처리속도 30% 이상 빨라져

컨테이너 하역능력을 대폭 향상시킨 초대형 컨테이너 크레인이 부산 신선대 부두에 설치됐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5월 부산 신선대컨테이너부두주식회사(PECT)로부터 수주한 컨테이너 하역용 크레인 5기중 2기를 제작해 신선대부두 4선석에 설치, 시운전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컨테이너 크레인은 폭 27m, 길이 133m, 높이 113m의 초대형 크레인으로 6단 20열 규모의 수퍼 포스트 파나마급 컨테이너 선박을 취급할 수 있다.

특히 이 크레인은 항만 하역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피트 컨테이너 2개를 동시에 하역할 수 있는 트윈리프트 크레인에 자동주유장치 등 자동화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컨테이너 처리속도가 종전보다 30% 이상 빨라졌다.

부산 신선대 부두는 선박대형화 추세에 맞춰 지난해부터 기존 16열 컨테이너크레인을 20열 이상으로 교체하는 확장공사를 진행 중이다.

두산중공업은 신선대 부두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는 부두임을 고려해 크레인 내구력을 대폭 향상시키고 운전시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이프 보강재를 이중으로 설치하는 등 고속 고효율 구조로 설계했다.

두산중공업 박경호 상무(운반BU장)는 “작업 능력 향상과 크레인 운영의 편의성을 위해 30여명의 크레인 기사 및 정비요원들에게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 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운전석의 시야를 넓게 확보하는 등 50군데 이상의 설비개선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두산중공업은 나머지 3기를 오는 8월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두산중공업은 그동안 신선대부두를 비롯해 감만부두, 자성대부두 등에 부산항 전체 컨테이너 하역용 크레인의 절반에 가까운 총

19기의 크레인을 제작 공급했으며, 특히 지난해 태풍 매미 때는 단 1대도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아 항만 운영사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지난 1월 부산진해신항만에 들어갈 1천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 크레인 49기도 수주하고 창원공장에서 제작중에 있다.

톨게이트 품질검사제 도입

- 공장 출하 전 발주처 검사시와 동일한 상황에서 검사

두산중공업이 보다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공장 출하 전 고객의 입장에서 검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톨 게이트 검사제'를 도입, 실시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두산중공업 크랭크샤프트 공장에서 첫 실시된 '톨 게이트 검사'에서 이 회사 기술팀, 품질관리팀 직원 등으로 구성된 품질검사팀이 노란색 조끼를 착용하고 공장 작업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주처 검사시와 동일한 상황에서 각종 계기를 통해 품질검사를 수행했다.

이번 '톨 게이트 검사'는 제품의 외관과 포장상태, 기능적인 면을 중심으로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체크함으로써 제품이 발주처에게 인도됐을 때 첫 인상부터 고객으로 하여금 호감을 느끼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두산중공업 김종명 부사장(주단BG장)은 "이 제도의 실시로 고객 만족 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들에게도 품질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부발전,

변화와 혁신을 위한 On-line 교육 실시

韓國南部發電(株)(사장 金相甲 / 약칭 南電)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변화와 혁신에 관한 내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변화관리 On-line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변화관리 교육은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론을 학습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3개월간 500여명의 직원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특히 이번 교육은 1기당 1개월 과정으로 변화와 혁신에 대하여 교육생들이 On-line상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류하는 한편 경영혁신 분야 전문가가 매회 동영상 강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총 20회에 걸친 교육 자료, 선진기업들의 경영혁신 기법에 관한 특강 3편 등이 동영상으로 강의된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은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간부, 직원간 서로 변화의 역할도 이해하게 되었다.

남전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전직원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본격 시행

韓國南部發電(株)이 올 하반기부터 '중소 기업 기술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구현과 기업이념인 사회공헌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중소기업지원을 통한 전력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南電의 '중소기업지원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및 육성, 우수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 및 기기 국산화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발전설비 정비, 시공, 제작업체 등이며 지원분야로는 협력 연구개발사업, 무상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총 6개 분야로 구분된다.

약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인 협력연구개발사업은 인터넷과 신문 등을 통해 과제를 공모 받아 '南電 연구개발위원회'에서 과제를 확정하고 南電과 업체 및 대학, 연구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며 과제 성과물은 평가 후 현장에서 활용하게 된다.

또한 영세업체 전기설비 진단 및 환경화학분야 분석업무를 지원하는 '무상기술지원'과 발전설비 정비 및 건설업체 직원을 대상



회 | 원 | 사 | 동 | 정

으로 발전시스템 이론 교육 및 정보화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인력양성 계획'도 마련 되어 있다.

이밖에도 납품/시공 분야의 신규진입 장벽을 완화하고자 계약 업무분야 개선 등과 건설공사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기준을 마련 하고, 중소기업과의 기술정보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한편 南電은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오는 6월까지 사내외 '중소기업지원 홈페이지'를 구축 완료하고 관련 정보 공지 및 최신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케이디파워,

냉난방시설 제어시스템 '호평'

- 전기료 20% 절감, 설치비 2년내 회수

케이디파워가 개발, 호평을 받고있는 '냉난방시설 최적운전 제어시스템'의 핵심 제어장치인 KEN-2500, OR-206, KEN-100DM,

케이디파워(대표 박기주)가 개발, 시판중인 '냉난방시설 최적운전 제어시스템'이 전력수용가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전력요금을 최대 2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첨단 제품이다. 또한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실시간 최적운전이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이 시스템은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첨단 제어기기인 KEN-2500(자동역률제어장치), KEN-100DM(최대수요전력제어기), OR-206(역률제어출력장치)으로 구성, 신뢰성을 공인받은 제품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 제품은 최근 들어 냉난방 부하 비중이 높은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며 전력 품질 향상과 전력요금 절감에 대한 수요자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전력 요금 절감 효과가 높아 시설 설치비용을 2년 내에 회수할 수 있다"며 "에너지 소비 합리화 정부

시책에도 가장 적합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LG산전,

중국무석 저압기기 · 자동화기기 공장 기공

- 장쑤성 우시市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 가져
- 자본금 6백만弗, 2만평 규모로 설립, 2009년까지 약3천 4백만달러 투자 예정
- 내년 6월부터 본격 생산, 2006년 7천만달러, 2007년 1억6천만달러 매출 예상

LG산전이 중국에 약 2만평 규모의 저압기기 및 자동화기기 현지 생산법인을 세운다. 31일 장쑤성(江蘇省) 우시市(無錫市) 신구(新區)개발구에서 저압기기 및 자동화기기 생산법인인 러진산전(무석)유한회사(樂金產電(無錫)有限會社)의 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은 김정만 LG산전 사장을 비롯하여 공베이싱 우시시 수석 부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러진산전은 LG산전이 6백만달러를 단독 투자해 설립한 중국 현지법인이며, 2009년까지 약 3천4백만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러진산전은 12월 시제품 생산을 시작으로 내년 6월부터 본격적



으로 제품 생산에 들어가, 2006년 약 7천만달러, 2007년 약 1억6천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저압기기 및 자동화기기 생산법인 설립으로 기존의 전력 시스템 생산판매 법인인 다롄(大連)법인과 무역법인인 상하이(上海)법인을 연계하여 기기에서부터 시스템까지 종합 생산판매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중국의 제2내수 시장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방글라데시 철도신호설비 시장 국내업체 첫 진출

- SIEMENS, ALSTOM 등 세계 유수 6개 기업과 입찰 경쟁 끝에 방글라데시 10개역 신호설비사업을 1천17만달러에 수주

- 이번 수주로 현재 입찰평가가 진행중인 방글라데시 2개 프로젝트를 비롯, 동남아, 중동지역 프로젝트에서도 수주가능성 높아

LG전선이 그동안 프랑스, 독일 업체들이 장악하던 방글라데시 철도신호설비 시장에 국내업체로는 처음으로 진출했다.

LG전선은 현대종합상사와 협력하여 방글라데시 철도청 (Bangladesh Railway)이 발주한 『아카우라(AKHAURA)-실헛(Sylhet) 구간 10개역 신호설비 프로젝트』를 약 1천17만달러에 수주했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 철도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처음 참가한 LG전선은 독일 지멘스(Siemens), 프랑스 알스톰(Alstom) 등 세계 유수 6개 기업들과 가격 및 기술평가를 거쳐 이번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아카우라-실헛 구간 10개역의 신호설비를 현대화된 전자연동장치와 현장설비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으로, LG전선은 시스템 설계, 제작, 설치부터 시운전, 유지보수까지 일괄해서 맡는 턴키방식으로 수행하며, 2006년까지 5월까지 신호시스템을 납품할 예정이다.

LG전선 관계자는 “철도 신호설비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진출 기업이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현재 태국 신호설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LG전선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수주 성공의 이유를 설명했다.

LG전선은 이번 프로젝트 수주로 현재 입찰 평가가 진행중인 방글라데시 12개역 프로젝트와 6개역 프로젝트에서도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또한 입찰 진행중인 동남아, 중동지역의 프로젝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4백kV XLPE 초고압케이블 해외 수출

LG전선은 국내 전선업체로는 처음으로 4백kV XLPE 초고압케이블을 해외에 수출 한다고 3일 밝혔다.

XLPE 초고압케이블은 송·배전용 지중선로로 사용되는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로 기존 OF케이블에 비해 송전능력이 높고 전력손실률이 낮으며 절연물로 오일을 쓰지 않아 환경오염 방지와 화재시 방재능력이 강화됐다.

XLPE 초고압케이블중에서도 4백kV 제품은 전선업계에서 '기술의 꽃'으로 불린다고 LG전선은 설명했다.

이번 수출은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무역도시인 제다의 전력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위한 것으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천만달러 규모의 4백kV XLPE 초 고압케이블과 접속함을 포함한 시스템을 제공하게 됐다고 LG전선은 덧붙였다.

이번 입찰에는 이탈리아의 피렐리, 프랑스의 넥상스 등 초고압케이블 분야의 세계적 기업들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LG전선 관계자는 “4백kV 초고압케이블의 해외수주 성공으로 그동안 피렐리 넥상스 등 몇몇 외국 기업들이 독점해온 해외 초고압케이블 시장에서 LG전선의 영향력을 점차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